



## 이천 도자문화의 역사와 위상을 돌아보다

2018년 6월 13일. 폴란드 크라코우시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 대표들의 만장일치 박수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 퍼지는 사건이 있었다. 2010년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천시가 제12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에서 공예분야 회원도시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대한민국 최초로 개별 창의분야(공예 및 민속예술)에서 의장 도시로 선출되는 순간이었다.

이천시는 그동안 매년 개최되는 창의도시 연례회 뿐 만 아니라, 공예분야 서브네트워크 회의, 국제포럼, 국제회의나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석해 왔으며 두 차례에 걸친 국제 창의도시 워크숍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중국과 일본으로 한정됐던 국제 교류의 틀을 미주와 유럽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내시장에 한정된 도자시장도 2013년 미국 아모카 전시전을 필두로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영국 런던 콜렉트까지 당당히 진출하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이러한 근간에는 이천의 도자역사와 문화 역량의 역할이 핵심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어 보인다.



## 1. 도자기 개요

도자기란 어떤 기물일까? 도자기란 도기(陶器)와 자기(磁器)의 약칭으로서 가소성(可塑性)이 있는 점토(粘土)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 후 고온으로 번조(煆造)하여 견고하게 된 것을 말한다.

『세라믹(ceramics)을 생각한다』라는 책의 저자 시라기요이찌(素木洋一)씨에 의하면 와(瓦)(즉 개와)蓋瓦, 일본어로 가와라)는 초기에 토기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문자는 토기를 빚는 형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도)陶’는 언덕 부(阜=阝)와 에워쌀 포(勺=사람이 물건을 안은 자세), 장군 부(缶)를 합친 상형문자이다. 부缶는 배가 크고 구경(口徑)이 작은 (와기)瓦器로 주로 술이나 장을 담는데 쓰는 그릇으로 진(秦)나라 사람은 이것을 북(鼓)이라 했다 한다. 따라서 (도)陶는 처음에 가마(窯)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소성품(燒成品)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자(磁)’는 질이 단단한 그릇을 말한다. 본래 ‘자(磁)’는 ‘철(鐵)을 흡인(吸引)하는 돌 즉, 자석(磁石)’이라는 뜻이지만 이 글자가 ‘자(瓷)’자 못지않게 많이 쓰이게 된 것은 예부터 자주요 도자기(磁州窯 陶磁器)로 유명한 중국 하북성 자주요((河北省 磁州縣)의 이름 첫 글자를 차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器)’는 입 구(口)자 네 개와 개 견(犬)의 합성어로서 각각 네 개의 구(口)는 그릇 명(皿)을, 견(犬)은 개고기(犬肉)을 의미한다. 즉 상고시대에는 개고기를 상식하였으므로 ‘기(器)’의 본뜻은 많은 접시에 개고기를 담는 의미로 전해져서 결국 그릇을 뜻하게 되었다. ‘器’는 식품을 가득히 담는 기명(器皿)의 의미 뿐만 아니라 그릇의 재료, 기물(器材, 器物, 道具, 品物) 등의 한자로 사용되고 학술용어로 사용되어 도자기를 총칭하기도 한다.

영어의 경우 ceramic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공을 kerameus, 도공이 쓰는 원료 또는 제품을 keramos, 도공이

사는 마을을 kerameikos라고 하였으며 도기시장도 kerameikos라고 했다.

여기에서 도공의 원료 또는 제품 즉, 도기(질)을 의미하는 keramos의 어원에 관해서는 의논의 이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어 간어로 밀납(蠟)을 뜻하는 kera이며 또 하나는 뿔(角)을 뜻하는 keras이다.

kera가 뜻하는 밀납은 가소성(可塑性)이 있는 재료를 의미하므로 결국 성형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keras는 음주용의 각배(角杯, rython, 고대 그리스에서는 점토로 뿔과 같이 만든 술잔이 많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에서도 각각 질은 다르나 형태는 비슷한 뿔잔(角杯)이 있다. 그리하여 keramos는 흙(土) 또는 항아리(壺)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그 밖에 ‘굽는다’는 소성의 의미를 고대 범어(梵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소성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완성된 산물을 keramos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kula가 keramos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다. ‘언제나 세라믹의 원래 의미성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물건’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2. 이천, 도자문화의 여정

이천이라는 곳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문장이 있다. 조선 초기의 문장가인 양촌 권근선생은 『이천향교기(利川鄉校記)』라는 책에 “땅은 넓고 기름지며 백성은 많고 부유하다(土廣而肥, 民衆而富)”라고 적고 있으며, 이천의 농학자였던 성천 유달영 박사는 1984년 『이천군지(利川郡誌)』 편찬을 기념하면서,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군민정신(郡民情神)이 마치 흘러가는 강물과 같구나(弘利民如川水)”라고 이천과 이천사람들의 정신을 정리하고 있다.

이천에서는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무문토기를 시작으로 도자기가 꾸준히

제작되었다. 16세기 기록에는 이천의 특산품으로 ‘도기(陶器)’가 유명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천 곳곳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생산했던 가마터유적이 남아있다.

사음동의 사기막골 도예촌은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쓰기 위한 백자를 굽던 곳이다. 이 곳의 사기장들은 광주 분원에 자주 징발되어 진상용 백자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 사기막골은 도자기 단일 품목의 유일한 전통시장이므로써 50여개의 공방이 모여 있다.

한편 신둔면은 1961년 전후로 수광리 일대에서 민속도자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여 가마들이 형성된 곳이다. 젊은 사기장들이 당시 호황이었던 칠기가마에서 일하며 기술을 연마해 분청사기, 청자, 백자 등 전통 도자기를 재현하여 전통 도자기술 부활의 터전이 되었다. 근래에는 이천시에서 신둔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를 조성해 200여 개의 공방을 유치함으로써 도자기의 생산과 소비,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소가 되고 있다.

15세기 이후 이천 지방에서 도자기 생산은 다양하진 않지만 지역 특산물 수준까지 기록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이천부의 특산품으로 백옥과 도기가 기록되어 있다. 16세기 중반에 나온 ‘동국여지’에도 백옥과 도기, 석회, 밤을 이천의 특산물로 꼽았다. 그러나 이보다 약 1백년이 뒤진 17세기 중반의 ‘여지도서’에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古有今無)’라고 하였다.

이천 관계 문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천의 도기는 대략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이르는 100~150년 정도의 전성시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옛지도나 마을 이름에 사기실, 점말, 점촌과 같은 명칭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모두 옛날에 도자기를 굽던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마장면 해월리 건지산 동쪽 사기실 窯址에서는 세련된 솜씨의 각종 제기류와 대접류의 백자편들이 출토되고 있다. 사기실 동쪽 500m 떨어진 기슭의 점말 요지에서는 백자와 석간주 유약을 입힌 흑색 계통의 자기 등도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또 마장면 양촌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

가마골, 모가면 마옥산 기슭에서도 백자 가마터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조선시대 사용원의 분원에서는 전국 각지의 원료를 가져다 백자 제작에 실험으로 사용하였다. 숙종 조에 양구, 봉산, 진주, 충주, 이천 등지의 백토가 양질로 꼽혔음을 알 수 있다. 성종 24년 사용원 제조 유자광이 가마 모형을 만들어 와서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새로운 가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천 점토를 써야하니 부근 고을을 시켜 흙을 사기소로 날라 오도록 해서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목이 보인다. 즉, 백자의 원료인 백토뿐만 아니라 가마를 쌓는 데에 있어서도 이천의 점토가 손꼽을 정도로 우수하였던 것이다.

사음동 사기막골에는 옛날 이 마을 도공들이 분원으로 차출되어 관요 도자기 제작에 참여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군병조(軍兵條)에 사용원 장인보 30명이라 하여 구전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나온다. 현종 8년 간행된 『이천부읍지(利川府邑誌)』와 고종 연간에 나온 『읍지(邑誌)』에도 사용원 사기장 인보 30명 차출의 기록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분원 관요로 차출되어 일정



이천 설봉산성에서 출토된 토기

기간 동안 도자기 제작에 참여했을 것이므로 이들을 통해 관요의 고급기술이 이천의 도공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음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선사시대 토기부터 시작된 이천의 도자문화는 설봉산성의 발굴조사를 통해 4-5세기 백자와 그 후 신라시대의 많은 토기유물들을 남기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기 생산의 흔적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으며 조선 전기부터 백자 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이르는 사이에는 지역 특산물로 손꼽힐 만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향토사 관련 문헌들에는 도자기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하여 17세기 이후로 생산이 중단되어 버린 것처럼 나와 있다. 그 이후 19세기 말부터 이천에 칠기가마가 등장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검은색 유약의 그릇을 만들었다.

1900년대, 일본인 골동품 수집가들이 고려청자에 주목하면서 1908년부터 고려청자를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왕직 미술품제작소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재현청자는 주로 일본인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일본과 서양 양식이 절충되어 전통 자기의 복원으로는 보기 어려웠다. 한편 유근형 등 일부 조선인 도예가들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도자공장에서 실무를 익힌 뒤 전통 기법을 연구하여 전통 청자와 자기 기술을 부활시키고자 했다.

사용원 광주분원 폐쇄 이후 곳곳으로 흩어진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전통 가마에서는 옹기 등 생활도자기를 주로 생산하였다. 이러한 가마들 가운데 이천의 칠기가마가 있었다. 칠기는 일반 옹기보다 한층 높은 온도에서 구워 옷칠한 것처럼 검은 윤기가 나는 그릇으로, 단단하고 치밀해 자기에 가까운 품질을 지닌다. 본래 백자를 굽던 이 지역의 사기장들이 옹기에 백자 제작기법을 접목해 탄생시킨 그릇으로 추정된다. 수광리의 칠기가마들은 광복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피해 살아남아 50년대 후반 호황을 누렸다. 이후 한국조형문화연구소와 한국미술품연구소에서 전통 도자 기술을 연구했던 도예가들이 칠기가마에 모여들어 활동하면서, 이천은 전통 도자기술을 부활시키는 현장이 되었다. 특히 해강고려청자연구소를 설립한 해강 유근형은 도예의 기법을 정립하였고, 고려도요의 도암 지순탁은 최초로 고려청자 재현에 성공하고 후학을 양성했으며, 광주요를 설립한 광호 조소수는 일본에 한국 도자기를 알리고 수출하여 도공들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1950년대 말 서울 대방동에 있던 한국미술연구소(대방동가마)에서 민속 도자기를 1956년부터 만들기 시작하다가 1958년 문을 닫게 되자 그 대방동가마에서 일하던 도공들이 거의 모두 칠기 가마가 있는 이천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이천에서는 청자, 백자, 분청, 색자 등을 만들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천의 도자문화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 3. 도자문화의 전승과 전망

이천시의 도예가 가운데서는 2020년까지 8인의 대한민국 명장이 배출되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도자 산업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예인들의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이천 도자기 명장 제도를 시행해 2020년까지 23명의 이천 도자 명장을 선정했다.

이천의 명장들은 ‘한국도자의 우수한 전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 도예 기법을 연구하는 한편 새로운 조형과 기법을 실험하며 한국 도자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에서 도예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도자문화의 공동체성에서 이천의 미래 도자문화의 정수를 기대해 본다.

이태호

(이천시청 학예연구사)

